

2015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및 2016년 1/4분기 전망(SBSI)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eunhyung@ricon.re.kr



< 목 차 >

- | | |
|---------------------|----------------------------|
| I. 조사개요 | I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
| II.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전망 | IV. 전문건설업 경영 애로사항 |

요 약

- 2015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3/4분기보다 5.7p 하락한 58.9로 나타남. 이는 금년 들어 가장 낮은 조사치로서 건설업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던 2014년 2/4분기와 유사한 수준임.
 - 2015년의 연간 및 분기별 건설수주는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하지만 이를 2015년의 각 분기별로 비교하면 4분기의 증가율이 3분기 대비 약 10%p 감소한 수준이었음.
 - 또한 2015년의 전체 건설기성은 전년 대비 2.1% 증가했지만 분야별로는 전년 동기대비 건축기성은 하반기에 증가한 반면 토목기성은 1년 내내 감소세를 나타냄. 또한 4분기의 건설투자 역시 3분기에 비해 6.1% 감소했다는 점도 계절적 요인과 함께 조사업체들의 응답에 반영되었을 것임.

- 2016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55.2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비관적 추세는 건설공사의 비수기인 1분기가 지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정부와 여러 공공기관들이 1분기부터 조속한 재정조기집행방침을 실시중이고, 2015년에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던 건축인허가면적의 잔여 착공분 등으로 인한 민간부문의 공사물량증가도 예상할 수 있음.
- 하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익성문제는 건설공사물량의 증대와 별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공사물량이 늘어나더라도 그것이 적정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저가하도급이라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경영상황은 개선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임.

〈2015년 4/4분기 평가 및 2016년 1/4분기 전망〉

구분	전체 BSI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2012	1/4분기 평가	40.3	40.7	46.3	38.6	28.0	45.3	43.8	34.3
	2/4분기 평가	54.4	61.9	56.0	52.9	44.1	58.4	57.2	49.4
	3/4분기 평가	42.2	52.9	42.0	39.3	31.5	47.0	47.6	33.3
	4/4분기 평가	35.8	43.2	38.7	29.5	39.1	33.6	43.5	20.5
2013	1/4분기 평가	40.9	52.2	35.1	41.3	39.6	41.7	43.9	35.0
	2/4분기 평가	35.9	47.8	30.9	35.2	36.7	35.4	40.6	26.6
	3/4분기 평가	34.6	41.3	32.0	34.1	31.1	36.8	36.8	30.4
	4/4분기 평가	47.4	52.2	43.0	49.0	43.5	49.7	51.0	41.6
2014	1/4분기 평가	62.5	66.7	63.6	60.5	68.0	62.5	62.5	62.5
	2/4분기 평가	57.7	83.3	38.1	63.6	38.5	62.1	61.5	55.6
	3/4분기 평가	49.4	100.0	47.8	40.0	81.0	37.5	56.3	44.4
	4/4분기 평가	56.6	84.6	70.4	39.5	74.1	48.2	75.8	44.0
2015	1/4분기 평가	67.1	85.7	40.0	81.6	64.3	69.0	77.8	60.5
	2/4분기 평가	72.5	85.7	73.3	68.8	84.0	65.9	65.6	78.4
	3/4분기 평가	64.6	83.3	67.9	58.1	81.8	55.8	92.3	46.2
	4/4분기 평가	58.9	85.7	60.6	54.0	88.9	46.0	63.2	55.8
2016	1/4분기 전망	52.2	28.6	57.6	52.0	74.1	42.9	63.2	44.2

- 2015년 4/4분기 전문건설업 세부항목별 지수를 3/4분기와 비교하면 총 8개 항목 중 1개 항목(하도급)은 상승, 7개 항목(원도급·공사대금수급·자금조달·인력수급·인건비·자재수급·자재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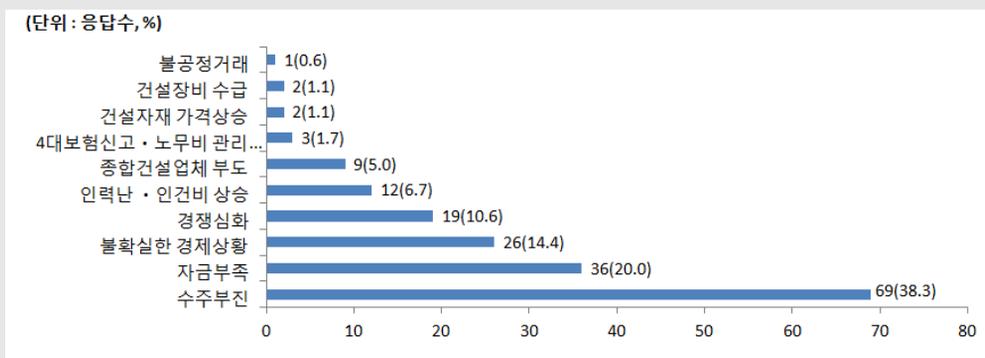
〈세부항목별 2015년 4/4분기 평가 및 2016년 1/4분기 전망〉

구분	전체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원도급	실적	54.4	85.7	69.7	40.0	70.4	47.6	65.8	46.2
	전망	53.3	85.7	63.6	42.0	77.8	42.9	68.4	42.3
하도급	실적	58.9	100.0	63.6	50.0	74.1	52.4	60.5	57.7
	전망	53.3	71.4	51.5	52.0	70.4	46.0	63.2	46.2
공사 대금수급	실적	80.0	85.7	90.9	72.0	81.5	79.4	73.7	84.6
	전망	78.9	85.7	90.9	70.0	81.5	77.8	73.7	82.7
자금조달	실적	63.3	100.0	72.7	52.0	74.1	58.7	73.7	55.8
	전망	52.2	85.7	57.6	44.0	66.7	46.0	57.9	48.1
인력수급	실적	76.7	71.4	81.8	74.0	66.7	81.0	78.9	75.0
	전망	78.9	57.1	78.0	84.8	77.8	79.4	81.6	76.9
인건비	실적	44.4	28.6	42.0	51.5	55.6	39.7	47.4	42.3
	전망	78.9	57.1	84.8	78.0	77.8	79.4	81.6	76.9
자재수급	실적	96.7	100.0	103.0	92.0	92.6	98.4	86.8	103.8
	전망	100.0	114.3	100.0	98.0	92.6	103.2	94.7	103.8
자재가격	실적	61.1	71.4	69.7	54.0	59.3	61.9	68.4	55.8
	전망	48.9	57.1	60.6	40.0	55.6	46.0	60.5	40.4

■ 전문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사항은 ‘수주부진’이 38.3%, ‘자금부족’이 3/4분기(13.9%)보다 늘어난 20.0%로 조사됨. 그 다음으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14.4%로 나타남. 주목할 점은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종합건설업체의 부도’의 응답수가 평시에 비해 늘어났다는 것임.

- 그 밖에는 경쟁심화(10.6%), 인력난·인건비 상승(6.7%), 종합건설업체부도(5.0%), 보험신고와 노무비관리 등 현장관리의 어려움(1.7%), 건설자재 가격상승(1.1%), 건설장비수급(1.1%), 불공정거래(0.6%)의 순으로 나타남.

〈 2015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영애로사항 〉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경기변동은 기업활동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기업가의 의도나 심리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 경기실사지수는 다른 경기지수와 달리 내수, 수출, 설비투자, 고용수준 등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까지도 조사할 수 있음. 또한 조사방식이 설문조사를 통해 신속히 이루어지므로 경기대응성이 높고, 경제통계로는 포착할 수 없는 기업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수량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현재 경기실사지수는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재정부, 무역협회 등 여러 기관에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경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음.
-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특히 건설시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전망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¹⁾.
 - 또한 건설, 제조, 설비 등 산업에서 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하도급업체의 경기인식과 판단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했음.
 - 본 조사는 하도급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타 조사에 비해 중소기업체들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는 특징을 가짐.
- 전문건설업의 경기실사지수 조사 분석은 향후 경기전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대내외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

1) 전문건설업체는 경기실사지수는 2009년부터 분기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조사내용

- 2015년도 4/4분기 전문건설업의 경기판단과 향후 2016년 1/4분기 경기전망 조사를 위해 총 10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문건설업 경기판단, 세부항목(공사물량, 자금사정, 인력수급, 자재수급) 및 경영애로사항으로 구성됨.

표 1 | 설문조사 내용

구 분		조 사 내 용
사업체 개요		- 기업명 및 작성자 일반사항
건설 경기 전망	건설경기 (전분기대비 금분기)	- 전반적 경기실적
	항목별 건설경기 (전분기대비 금분기)	- 공사물량 (원도급, 하도급) - 자금사정 (공사대금수급, 자금조달) - 인력수급 (인력수급, 인건비) - 자재수급 (자재수급, 자재가격)
	차기분기 건설경기 전망	- 공사물량 (원도급, 하도급) - 자금사정 (공사대금수급, 자금조달) - 인력수급 (인력수급, 인건비) - 자재수급 (자재수급, 자재가격)
경영애로사항		- 애로사항 및 정책적 요구사항 기술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회원사 중에서 선별된 308개사의 모니터링단에게 건설경기 판단에 관한 자체식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의 표본은 기업규모(대·중·소)와 본사 소재지(수도권·지방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기업규모는 2014년 시공능력평가액(업종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구분함. 대형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496억원 이상, 중형업체는 67억원 이상 496억원 미만, 소형업체는 67억원 미만인 업체로 구분함.

* 본사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를 수도권, 그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를 지방권으로 구분함.

○ 설문지를 배포한 308개사 중 90개사(회수율: 29.2%)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에 활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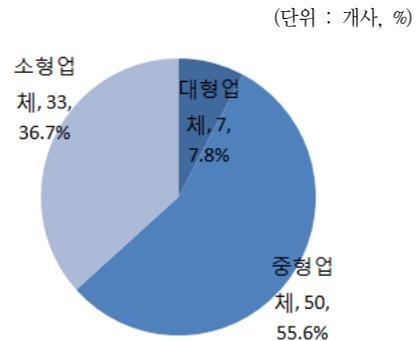
- 설문지가 회수된 90개사는 대형업체 7개사(7.8%), 중형업체 50개사(55.6%), 소형업체 33개사(36.7%)로 구성됨. 이중 수도권 업체는 27개사(30.0%), 지방권 업체는 63개사(70.0%)로 이루어짐.

표 2 |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를 위한 설문지 배포 및 회수현황

구분	배포(개사, %)	회수(개사, %)
수도권	99(32.1)	27(30.0)
지방권	209(67.9)	63(70.0)
전체	308(100.0)	90(100.0)

표 3 | 응답업체의 기업규모별 현황

구분	업체수(%)
대형업체	7(7.8)
중형업체	50(55.6)
소형업체	33(36.7)
전체	90(100.0)



○ 응답업체들의 주업종별²⁾ 분포는 토공사업이 15개사(16.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12개사(13.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1개사(12.2%), 도장공사업이 10개사(11.1%), 조경식재공사업 9개사(10.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8개사(8.9%), 강구조물공사업 5개사(5.6%), 기타 공사업 15개사(16.6%)로 나타남.

2) 응답업체들은 다수 면허를 보유할 수 있으므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파악함

표 4 | 응답업체의 업종별 현황

구 분	업체수(%)	구 분	업체수(%)	구 분	업체수(%)
토 공	15(16.7)	도 장	10(11.1)	강구조물	5(5.6)
금속창호	12(13.3)	조경식재	9(10.0)	포 장	5(5.6)
상하수도설비	11(12.2)	철근콘크리트	8(8.9)	기 타	15(16.6)
합계			90(100.0)		

- 한편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분석을 위해 건축 및 토목중심 업종을 공사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하여 <표-5>와 같이 구분함.

표 5 | 전문건설업 업종 구분 기준

구 분		업 종
전문건설업	건축중심 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석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등
	토목중심 업종	토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 등

II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전망

1. 2015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전망

- 2015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3/4분기보다 5.7p 하락한 58.9로 나타남. 이는 금년 들어 가장 낮은 조사치로서 건설업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2014년 2/4분기와 유사한 수준임.
 -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의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약 48% 늘어났으며 분기별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하지만 2015년의 각 분기를 비교해보면 2015년 4분기의 증가율이 3분기 대비 약 10%p 감소한 수준이었음.
 - 더구나 2015년의 전체 건설기성은 전년 대비 2.1%³⁾ 증가한 것에 그쳤는데 분야별로는 전년 동기대비 건축기성은 하반기에 큰 증가폭을 보인 반면 토목기성은 1년 내내 감소세를 나타냄. 또한 4분기의 건설투자 역시 3분기에 비해 6.1% 감소했다는 점도 조사대상업체들의 응답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4분기의 GDP도 3분기 대비 0.6% 늘어나, 1%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지난 3분기의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를 3분기의 경제성장률이 SOC중심의 건설투자확대가 내수성장의 견인에 기인한 바가 컸다는 평가에 비추어보면 이번 조사결과에는 동절기를 앞에 둔 4분기의 시기적 상황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6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52.2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비관적 추세는 건설공사의 비수기인 1분기가 지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이는 2016년의 정부정책이 지난해처럼 1분기부터 SOC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등 정부재정의 적극적인 집행에 맞춰져 있기 때문임.
 - 1분기의 재정 조기집행규모는 기존의 8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정책금융 역시 종전의 계획보다 확대할 계획임.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가계약공사대금의 지급기한을 기존의 19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집행하고 선급금의 지급기한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함.

3) 전년 동기대비 1분기 -2.0%, 2분기 -3.9%, 3분기 5.9%, 4분기 7.8%의 증감률을 기록함.

- 국토부, 서울시, 한국도지주택공사(LH) 등 정부와 여러 공공기관들이 1분기의 조속한 재정조기 집행방침에 발맞추면서 시일이 지날수록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2015년에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던 건축인허가면적의 잔여 착공분이 금년에 착공되면서 발생할 민간부문에서의 공사물량증가도 예상할 수 있음.
- 특히 민간부분의 공사물량증가는, 단열재와 내외장재 등 주택용 자재를 주로 생산하는 건자재업체들의 2015년도 영업이익률이 높았고 이런 추세가 2016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등에 비추어보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
- 하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익성문제는 건설공사물량의 증대와 별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공사물량이 늘어나더라도 그것이 적정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저가하도급이라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경영상황은 개선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임.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업체는 3분기보다 2.4p(83.3점 → 85.7점)증가, 중형업체는 7.3p (67.9점 → 60.6점)하락, 소형업체는 4.1p(58.1점 → 54.0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조사에서는 3분기에 중소형업체의 지수하락이 있었던 반면 대형업체는 종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하지만 이들 대형업체들은 오히려 다음 1분기를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했으며, 차이는 있지만 중소형업체들도 비관적인 전망을 보였음.

표 6 | 2015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16년 1/4분기 전망 (비교)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2009	1/4분기 평가	39.0	29.5	42.6	40.2	35.7	40.1	33.2	52.6
	2/4분기 평가	46.9	50.0	48.9	44.9	52.9	45.0	47.5	45.6
	3/4분기 평가	52.6	52.0	50.8	54.2	62.3	49.6	51.4	55.3
	4/4분기 평가	40.1	44.4	36.1	41.1	39.4	40.3	39.8	40.8
2010	1/4분기 평가	41.4	37.5	45.0	40.3	42.5	40.9	40.6	43.0
	2/4분기 평가	40.8	44.4	39.4	40.8	44.0	39.8	41.8	38.9
	3/4분기 평가	22.2	25.0	18.3	24.2	23.3	21.8	24.2	19.0
	4/4분기 평가	35.0	41.2	35.9	31.6	32.1	36.0	38.3	29.5
2011	1/4분기 평가	23.9	31.3	27.8	22.2	30.0	21.4	27.3	17.8
	2/4분기 평가	38.8	75.0	25.0	38.9	40.6	38.1	42.2	31.4
	3/4분기 평가	34.4	16.7	47.6	33.9	31.9	35.5	37.6	29.7
	4/4분기 평가	30.8	30.0	32.9	32.3	36.9	32.3	36.0	24.6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2012	1/4분기 평가	40.3	40.7	46.3	38.6	28.0	45.3	43.8	34.3
	2/4분기 평가	54.4	61.9	56.0	52.9	44.1	58.4	57.2	49.4
	3/4분기 평가	42.2	52.9	42.0	39.3	31.5	47.0	47.6	33.3
	4/4분기 평가	35.8	43.2	38.7	29.5	39.1	33.6	43.5	20.5
2013	1/4분기 평가	40.9	52.2	35.1	41.3	39.6	41.7	43.9	35.0
	2/4분기 평가	35.9	47.8	30.9	35.2	36.7	35.4	40.6	26.6
	3/4분기 평가	34.6	41.3	32.0	34.1	31.1	36.8	36.8	30.4
	4/4분기 평가	47.4	52.2	43.0	49.0	43.5	49.7	51.0	41.6
2014	1/4분기 평가	62.5	66.7	63.6	60.5	68.0	62.5	62.5	62.5
	2/4분기 평가	57.7	83.3	38.1	63.6	38.5	62.1	61.5	55.6
	3/4분기 평가	49.4	100.0	47.8	40.0	81.0	37.5	56.3	44.4
	4/4분기 평가	56.6	84.6	70.4	39.5	74.1	48.2	75.8	44.0
2015	1/4분기 평가	67.1	85.7	40.0	81.6	64.3	69.0	77.8	60.5
	2/4분기 평가	72.5	85.7	73.3	68.8	84.0	65.9	65.6	78.4
	3/4분기 평가	64.6	83.3	67.9	58.1	81.8	55.8	92.3	46.2
	4/4분기 평가	58.9	85.7	60.6	54.0	88.9	46.0	63.2	55.8
2016	1/4분기 전망	52.2	28.6	57.6	52.0	74.1	42.9	63.2	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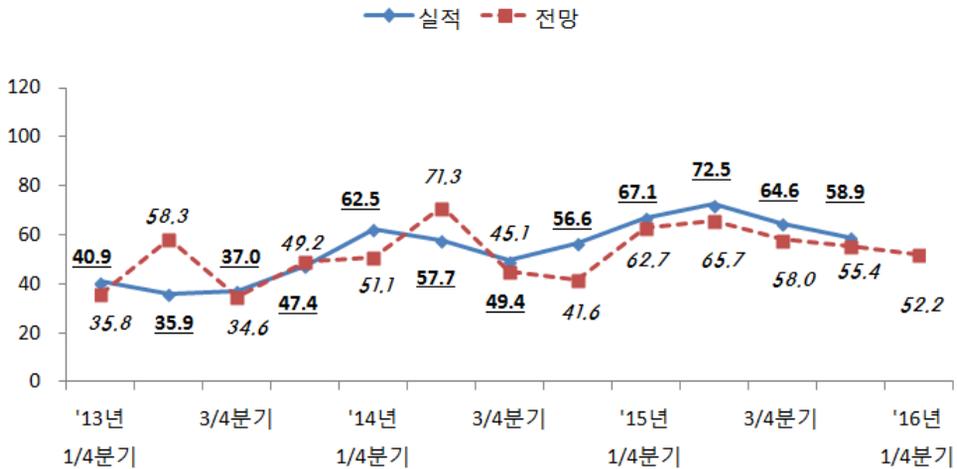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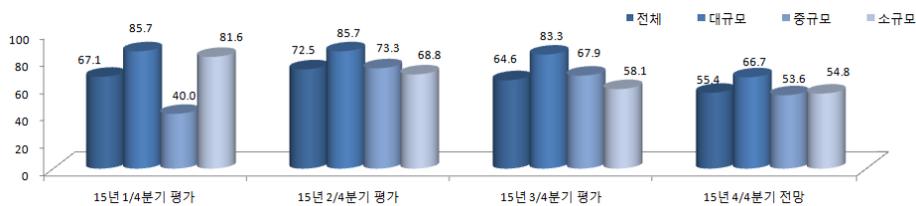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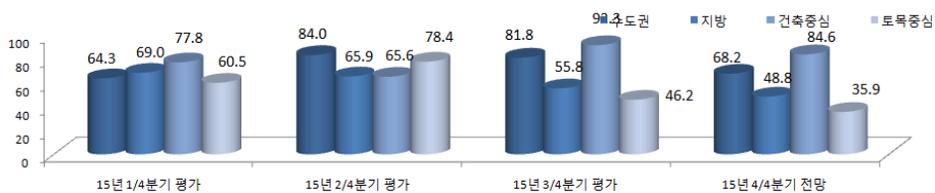
그림 11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실적 및 전망 추이

●● 건설동향

- 2015년 4/4분기 지역별 경기실사지수는 수도권업체는 88.9로 상승, 지방권업체는 46.0으로 하락했으며, 2016년 1/4분기 전망은 수도권은 74.1로 하락, 지방권은 42.9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지방권의 지수하락은 전국 공통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가령 제주의 경우에는 지난 해부터 건설경기의 호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내륙에는 그렇지 못한 지역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임.
- 2015년 4/4분기 업종별 경기실사지수는 건축중심 업종과 토목중심 업종이 각각 63.2과 55.8로 소폭의 차이를 보였으며 2016년 1/4분기 전망은 건축중심 업종은 63.2로 4/4분기와 비슷하게, 토목중심 업종 44.2로 건축부문보다 낮을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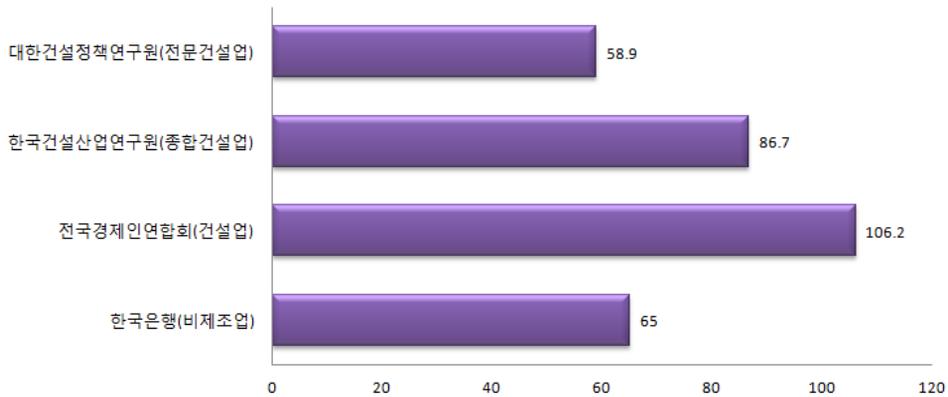
| 그림 2 |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추이(기업규모)



| 그림 3 |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추이(지역 및 업종별)

2. 기관별 경기실사지수 비교

- 2015년 3/4분기⁴⁾의 기관별 경기실사지수⁵⁾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6.2(101.9점→106.2점), 한국은행(건설(비제조업))이 65(74점→65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86.7(87.2점→86.7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⁶⁾⁷⁾⁸⁾는 58.9(64.6점→58.9점)로 나타남
- 3개 기관(한국은행,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조사치는 종전보다 하락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치도 11월 조사에서는 93.4라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자료 : 각 기관 발표자료 (타 기관은 2015년 12월 조사결과)

| 그림 4 | 기관별 경기실사지수

- 4)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경기실사지수와 유사한 조사시점의 수치값을 비교
- 5) 타 기관 조사자료는 3분기가 2015년 9월 조사치, 4분기가 2015년 12월 조사치를 인용함
- 6) 단, 월별로 조사되어 동일 분기 내에서도 등락이 나타나는 타 기관의 경기실사지수와 달리 분기별로 시행되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경기실사지수는 동일 기간 동안 발생하는 등락폭을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함.
- 7) 통상적으로 전문건설업의 경기실사지수는 타 기관의 조사결과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에 속한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하도급 중심의 영업활동 등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임
- 8) 전문건설업은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수가 많음에 따라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구조 형태가 되어 이들 기업의 수익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뿐만 아니라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경기가 개선되더라도 체감 정도가 낮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해야 함

Ⅲ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1. 공사물량지수 (원도급, 하도급)

- 2015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공사물량지수는 원도급이 54.4(60.0점→54.4점)으로 하락한 반면 하도급은 58.9(55.4점→58.9점)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원도급은 지난 1/4분기 이후로 지속된 하락세가 유지됨.
 - 원도급 공사물량지수 평가는 기업규모에 비례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업종별로는 3분기와 동일하게 건축중심업체가 토목중심업체보다 높게 나타남.
 - 하도급 공사물량지수 역시 원도급처럼 기업규모에 비례했으나 대형과 소형업체의 경우 평가치가 원도급보다 높았음.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업종별로는 건축중심업체가 토목중심업체보다 큰 폭으로 높게 조사됨.
- 2015년의 공사수주액이 전년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4/4분기 조사에서 원도급은 소폭 하락했더라도 하도급수주에 대한 평가가 소폭 상승한 것을 납득할 수 있음. 이는 전문건설업의 특성상 주로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2016년 1/4분기의 공사물량지수 전망은 원도급은 2015년 4/4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하도급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후 2016년 1/4분기를 지나 2/4분기로 넘어가면서 차츰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이 1분기를 비롯한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집중될 계획임에 따른 것이며, 특히 2016년의 착공면적 증대에 따라 공사물량의 증가에 대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임.

표 7 | 2015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공사물량지수 (비교)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원도급	'15년 4/4분기 평가	54.4	85.7	69.7	40.0	70.4	47.6	65.8	46.2
	'16년 1/4분기 전망	53.3	85.7	63.6	42.0	77.8	42.9	68.4	42.3
하도급	'15년 4/4분기 평가	58.9	100.0	63.6	50.0	74.1	52.4	60.5	57.7
	'16년 1/4분기 전망	53.3	71.4	51.5	52.0	70.4	46.0	63.2	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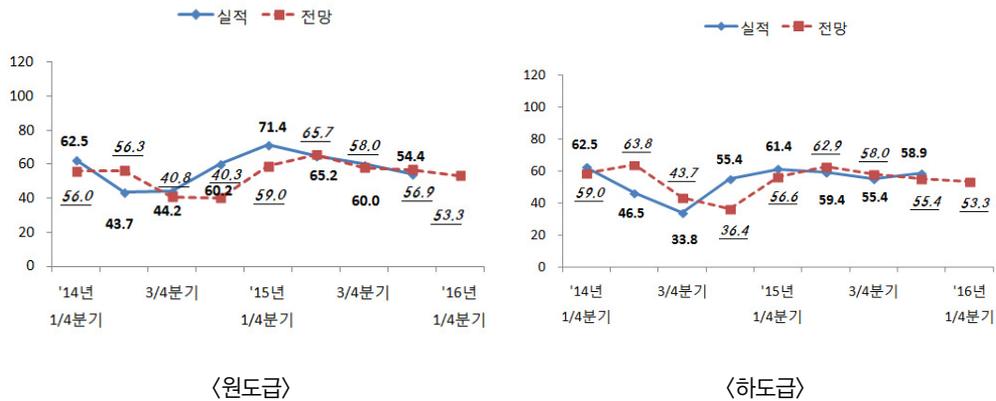


그림 5 | 원·하도급 공사물량지수 추이

2. 자금관련지수(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2015년 4/4분기의 전문건설업 자금관련지수를 살펴보면 공사대금수금은 80.0(86.2점 → 80.0점)로 3/4분기보다 하락, 자금조달지수는 63.3(69.2 → 63.3점)으로 떨어짐.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2015년 1분기부터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여왔는데 이번 4분기를 과거와 비교해보면 2014년보다는 매우 높지만 2013년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동 조사에서는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공사대금수금에 관련된 문제는 민간공사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임.
- 자금조달지수는 지난 2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여왔는데 이는 건설업에 대한 시장의 인식은 여전히 위험업종이라는 긍정적이지 않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이는 건설업 대출연체율이나 한계기업기준같은 수치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임.

- 기업규모별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중형업체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대형업체와 소형업체의 순서로 낮았으며 2016년 1분기의 전망도 유사한 수준임.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토목중심업종이 건축중심업종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자금조달지수는 대형업체가 가장 높고 중형업체와 소형업체의 순으로 큰 폭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크게 높았고 업종별로는 건축중심업종이 토목중심업종보다 높았음.
 - 2016년 1/4분기 자금관련지수 전망은 공사대금수금은 78.9로 이번 4/4분기보다 하락, 자금조달지수는 52.2로 크게 악화될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종전보다 개선된 2015년의 건설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건설경기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8 | 2015년 4/4분기 전문건설업 자금관련지수 (비교)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공사 대금	'15년 4/4분기 평가	80.0	85.7	90.9	72.0	81.5	79.4	73.7	84.6
	'16년 1/4분기 전망	78.9	85.7	90.9	70.0	81.5	77.8	73.7	82.7
자금 조달	'15년 4/4분기 평가	63.3	100.0	72.7	52.0	74.1	58.7	73.7	55.8
	'16년 1/4분기 전망	52.2	85.7	57.6	44.0	66.7	46.0	57.9	48.1

9) 건설업은 여전히 한국기업평가 등이 분류하는 5개 위험업종(건설, 부동산PF, 조선, 해운, 철강)의 하나이며, 낮은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대한 대출금리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추후 부동산 시장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특히 전문건설업체들이 자금조달상황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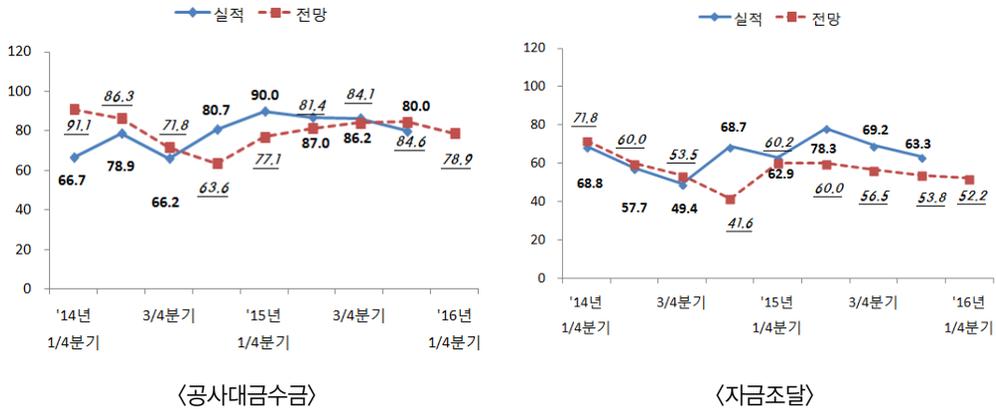


그림 6 | 전문건설업 자금관련지수 추이

3. 인력수급 및 인건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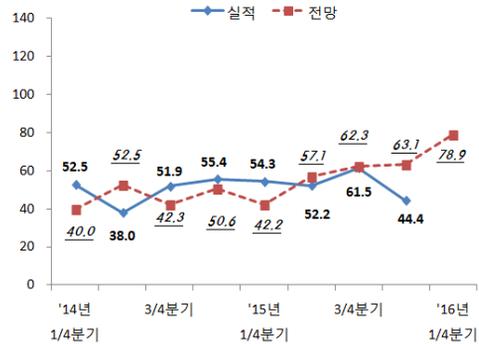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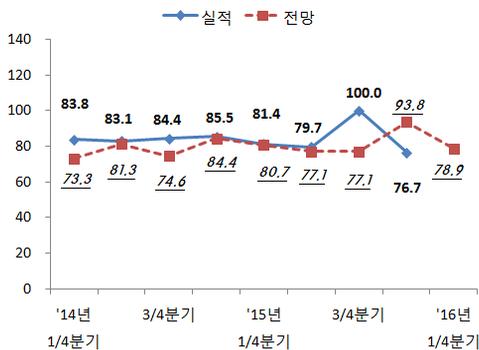
- 2015년 4/4분기의 인력수급지수는 76.7(100.0점→76.7점)로 3/4분기보다 크게 하락했으며 인건비지수도 44.4(61.5점→44.4점)로 하락해 지난 분기와 큰 차이를 보임.
- 최근 2년간 80전후를 기록했던 인력수급지수는 지난 3/4분기 조사에서 100.0을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2/4분기의 수준인 70후반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적인 건설경기의 회복과 함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건설현장에서는 임금 등의 요건으로 인해 외국노동인력에 대한 수요는 높은 반면 고용허가제 등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수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¹⁰⁾. 그리고 지역에 따라 실제로 숙련공을 구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같은 문제는 건설현장으로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는 것을 저해하는 근무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임.
- 기업규모별 인력수급지수는 중형업체가 가장 높았고 이보다 낮은 대형과 소형업체는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지역별로는 지방이 수도권보다 크게 높았으나 업종별로는 건축중심업종과 토목중심업종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10) 동일 건설현장 배치요건 등의 규제와 함께 인력도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3~4개월로 긴 것 등을 들 수 있음.

- 인력수급지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수주나 공사대금수급 등에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풍부한 건설인력의 수요로 인해 특히 인건비지수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규모별 인건비지수는 소형업체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형업체와 소형업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간의 격차가 컸음.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크게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건축중심업종이 토목중심업종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
- 2016년 1/4분기의 인력수급지수는 78.9로 소폭 상승, 인건비지수는 78.9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이는 1/4분기는 건설공사의 비수기인 동계라는 점을 감안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9 | 2015년 4/4분기 전문건설업 인력수급 및 인건비지수 (비교)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인력수급	'15년 4/4분기 평가	76.7	71.4	81.8	74.0	66.7	81.0	78.9	75.0
	'16년 1/4분기 전망	78.9	57.1	78.0	84.8	77.8	79.4	81.6	76.9
인건비	'15년 4/4분기 평가	44.4	28.6	42.0	51.5	55.6	39.7	47.4	42.3
	'16년 1/4분기 전망	78.9	57.1	84.8	78.0	77.8	79.4	81.6	76.9



〈인력수급〉

〈인건비〉

그림 7 | 전문건설업 인력수급 및 인건비지수 추이

4. 자재수급 및 자재비지수

- 2015년 4/4분기의 자재수급지수는 96.7(104.6점→96.7점)로 3/4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 자재비지수는 61.1(69.2점→61.1점)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¹¹⁾¹²⁾.
- 3/4분기와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에서는 건설자재의 수요가 타 지역보다 높은 경우도 있겠으나 전문건설업체들의 자재수급은 최근 2년간의 수준¹³⁾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골재¹⁴⁾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시멘트¹⁵⁾¹⁶⁾ 등의 필수자재가격도 물류비 등을 이유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레미콘¹⁷⁾¹⁸⁾ 가격 역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참고로 제주의 2016년 건설수주량은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만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단기에 증설될 수 없어 이같은 상황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임.
 - 하지만 타 지역에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멘트업계에 내린 담합과징금 부과 등으로 인해 가격인상을 논의하기 어렵게 되면서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은 당분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철강의 경우 철강업계의 과잉생산과 원자재가격의 하락추세가 맞물리면서 철근¹⁹⁾ 등 건설용 철강재의 공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참고로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중국산 철강재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11) 참고로 하도급을 주로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의 특성상 공사자재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자재조달이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이런 이유 등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통상적으로 자재비지수에 비해 높게 나타남

12) 반면에 공사원가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재비는 전문건설업체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도급 공사에서는 자재가격 상승시 하도급대금 조정이 쉽지 않거나 처음부터 적정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에 기인함

13) 동 항목은 2013년까지 100~120 사이의 조사치를 보였으나 2014년부터 90대로 하락함

14) 골재 역시 산립골재 이외에도 바다, 육상, 수중, 파쇄 등으로 세분화 됨

15) 시멘트의 경우 국내의 생산업체수가 한정되어 있어 생산-출하량에 대한 집계가 타 건축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함

16) 시멘트의 경우 상위 7개 제조업체가 연간 7~8조원 규모의 물량을 전국 레미콘업체들에 공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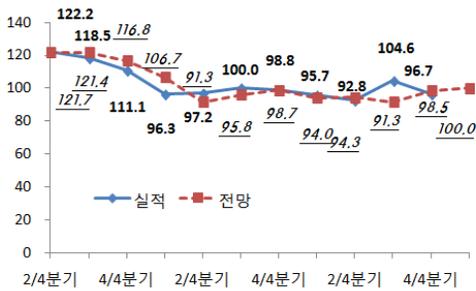
17)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 레미콘사는 807개, 시멘트는 상위 7개사

18) 레미콘의 경우 시멘트와 골재, 수송비와 인건비가 주요 가격인상요인으로 현재는 건설업계, 레미콘업계, 시멘트업계 간의 협의체가 가격조정을 담당하고 있음. 물론 이와 별도로 건설업계와 레미콘 업계, 레미콘 업계와 시멘트업계 간의 가격협상도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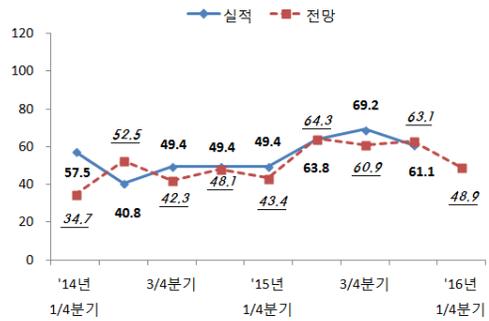
19) 철근의 경우 건설업계와 제강업계는 2014년부터 '선 가격결정-후 공급(분기별로 철근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공급)' 방식을 도입함

표 10 | 2015년 4/4분기 전문건설업 자재수급 및 자재비지수 (비교)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 중심	토목 중심	
자재수급	'15년 4/4분기 평가	96.7	100.0	103.0	92.0	92.6	98.4	86.8	103.8
	'16년 1/4분기 전망	100.0	114.3	100.0	98.0	92.6	103.2	94.7	103.8
자재비	'15년 4/4분기 평가	61.1	71.4	69.7	54.0	59.3	61.9	68.4	55.8
	'16년 1/4분기 전망	48.9	57.1	60.6	40.0	55.6	46.0	60.5	40.4



〈자재수급〉



〈자재비〉

그림 8 | 전문건설업 자재수급 및 자재비지수 추이

IV 전문건설업 경영애로사항²⁰⁾

- 전문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사항은 ‘수주부진’이 38.3%, ‘자금부족’이 3/4분기(13.9%)보다 늘어난 20.0%로 조사됨. 그 다음으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14.4%로 나타남.
- 그 밖에는 경쟁심화(10.6%), 인력난·인건비 상승(6.7%), 종합건설업체부도(5.0%), 보험신고와 노무비관리 등 현장관리의 어려움(1.7%), 건설자재 가격상승(1.1%), 건설장비수급(1.1%), 불공정거래(0.6%)의 순으로 나타남²¹⁾.
- 참고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통상 5순위 정도로 집계되던 항목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그간의 추세와 달리 3순위로 지목됨. ‘종합건설업체의 부도’ 역시 종전보다 순위가 올라감.

(단위: 응답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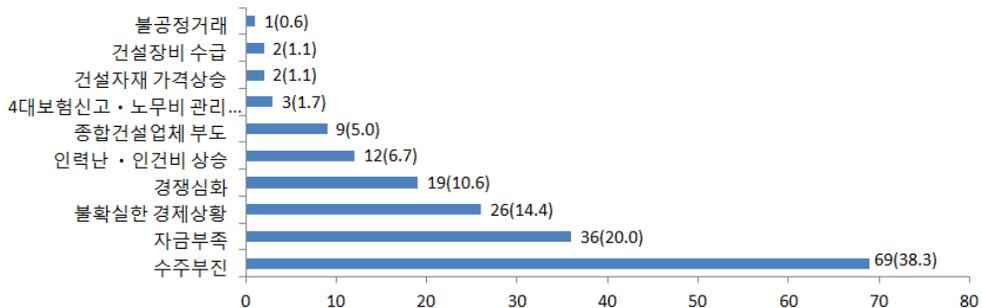


그림 9 | 전문건설업 경영애로사항(2015년 4/4분기)

20) 본 항목에서는 응답업체의 복수응답을 허용함

21) ‘현장관리’와 ‘건설장비수급’ 항목은 2014년 1/4분기 조사부터 추가됨